



설문대 소식



- * 연말 정산용 후원금 소득공제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우편물을 못 받은 회원분들은 도서관으로 연락바랍니다.
- * 물메병설유치원에서 1년동안 진행되었던 농촌지역 병설유치원 책읽어주기 사업은 12월 22일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우리를 반겨주던 툇막 툇막한 친구들... 평생 우리를 기억 하겠지요.
- * 도서관 지킴이 양성을 위한 도서관 학교 한마당 <책, 사람, 도서관>이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총 16시간 강좌로 열렸습니다. 도내 12개 작은도서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좌가 진행되었고 총 32명의 수료했습니다. 10년 이상 어렵게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온 강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강좌에 참가한 선생님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 * 후반기에 진행되었던 도서관 프로그램들이 12월말을 끝

으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접수 받고 3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 11월 22일에는 이반디 작가를 초청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어줄까"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참석한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훌쩍 시간을 넘겨 늦은 점심을 먹었다는 사실~ 엄마들의 책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 '자작나무숲' 친구들이 도서관학교 시간에 '소리나는 그림책' 공연을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달려와 주는 식구들이 있기에 항상 든든함을 느껴 봅니다.



설문대 겨울밤학 프로그램

2012년 겨울독서교실
"책 친구들과
몸놀이 해요"

- 대상 :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 일시 : 2월 셋째주 예정
- 접수 : 1월15일 부터

졸업하면 보지 못할
친구들이 모이는 곳

진선혜
제주중앙여자중학교 1학년

2011년 4월부터 매달 둘째주 토요일에 2시간씩 익숙한 얼굴들을 본다. '설문대어린이도서관'에서 6학년 때 같은 반 했던 친구들이랑 봉사활동을 한다. 우리는 만나고 나서 도서관 실내*외를 청소한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책 포장도 했다. 난 초등학교 2학년 때

부터 다니던 도서관이라 부담감이 없다. 사실 도서관이라 친구들도 꺼리기 없이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어서 좋다. 여럿이 모이면 할 이야기가 없다가 도 생기는 법! 잡담이 많아지곤 한다. 그 점에서 송구스러워 요즘은 말을 줄이고 청소 할 때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꾸준히 부담감 갖지 않고 후회하거나 송구스럽게 하지 않으며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내 인생의 전환점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송정은 | 책 읽는 여우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 유진이 엄마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자연에서 키우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아이 아빠와 뜻이 맞아 경기도에서 제주도민이 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무모한 듯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는 저희 부부의 마음이 잘 전해 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제주시 연동입니다. 근처엔 삼무공원이 있어서 아이들과 뛰어놀기 위해 자주 들리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건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이라 하기엔 외관이 별로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1층엔 노인정이 있었고, 도서관은 2층입니다.

한 번은 들려보아겠다는 생각에 문을 열고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만났을 때 부터 아이들을 위해 재미있게 꾸며놓은 조형물들이 우리를 반겨주었고 단혀있던 저의

마음은 눈독들 사라졌습니다.
빨리 도서관 문을 열어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급해졌습니다. 밖에서 보이던 어두운 벽들에, 어찌보면 지루해보여 눈에 띄지 않던 건물 외관은 도서관 문을 열면서부터 반전이 시작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 어디에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도서관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소품 하나하나에도 아이들에 대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작은도서관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 날부터 저는 매일매일 도서관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도서관을 다니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엄마들이 자원봉사로 도서관도 지키고, 봉사활동도 하고, 책토론도 하고... 여러가지 좋은 의도

의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의아했습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이 저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옆에서 보면서 마음속으로 함께하고 싶었고, 존경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책여우(책 읽는 여우들)' 엄마들의 모임 이름입니다. 저는 지금 책여우 회원이 되었습니다. 기존 책여우 회원 분들의 활동을 한 발짝 앞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 기회가 닿아서 도서관 학교 '책, 사람, 도서관'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보이기만 했던 엄마들은 각자 전문분야가 있었고, 수업을 하고 계실때 열정적인 강사로 새로운 모습을 하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에게는 신세계를 발견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림책은 아이들만 보는 책이라 생각했던 저에 그림책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제주라는 섬에서 이 작은도서관에서 이런 건설적인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농촌 병설유치원에 찾아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에 한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함께 갈 수 있음에 영광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가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우리가 더 신나요"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처음 참여하는 저는 그 말씀이 그리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전 주에 읽었던 책으로 '그림자 연극'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그림자 막 뒤에서 책 읽어주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따라 그림자 막대를 이리저리 흔들어 보이느라 바쁩니다. 그림자 연극을 보면서 아이들이 웃습니다. 뒤에서 그림자 막대를 흔들며 분주하신 우리들도 신나 더 열심히 움직입니다.

돌아오는 길에야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책 읽어주기에 꼭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원봉사는 억지로 이끌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셨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서의 자존감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두드려 보세요~

이 곳에 오면 누구나 당신을 반길 것입니다.



책 여우들과 함께하는 책들

책여우들이 발제한 내용을 올립니다.



그 집 이야기

-로베르토 인노첸티
그림/ 존 패트릭 루이스

그 집 이야기 마지막 휴양지에서 글과 그림의 명콤비를 이루었던 로베르토 인노첸티와 존 패트릭 루이스가 다시 한 번 뭉친 작품입니다. < 그 집 이야기>는 20세기, 백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벌어진 굵직한 사건들 아래, 실제로 사람과 자연과 공간은 어떻게 존재하고 변해 왔는지, 이탈리아의 한 농가를 무대로 보여줍니다. 페스트가 창궐한 해이고, 내가 세워진 해인 1656년 이후 버려지고 아이들이 찾아오고 새로운 시대를 맞은 '집'은 새 가족을 만나 결혼, 탄생, 이별, 전쟁을 겪습니다. 찢어진 4행시가 보여주는 울림과 작은 그림, 큰 그림이 짝을 이루어 보통 사람의 진짜 역사를 말해줍니다. 파시즘을 정통으로 다루었다는 이유로 그의 책 초판이 오히려 이탈리아에서 출간되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인노첸티는 자국의 역사를 인식하고 풀어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백 년의 역사를 되새깁니다.

*이야기 나누기

1. < 그 집 이야기>는 시도 좋았지만 그림이 압도적이었어요. 인노첸티의 그림은 사실적이고 환상적인 그래서 에리카 이야기나 마지막 휴양지를 보면 영화 한 편을 본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그림은 어떻게 다뤄왔나요?
2. 이 책과 정서가 비슷한 그림책은 무엇이 있는지...
3. 우리가 추억하는 집에 대한 이야기, 집의 개념, 미래 나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 이야기 나눠요.



‘제주다움’의 잠재력을 가장 큰 무기로 제주 촌놈의 유럽 책 여행기

책 마을의 여운은 계속된다. 서둘러 발을 옮겨 찾은 곳은 프랑스 남부 아를르와 아비뇽이 가까이 있는 몽톨리의 책마을이다.

이 책마을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을 살리기와 같은 정책적 요구가 맞아 떨어져 성공을 이룬 대표적 책 마을이다.

책 마을이 조성 된 지 20년 정도된, 유럽에서는 네 번째로 역사가 깊은 곳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미셸 브라방이라는 사람이 창업자인데 이웃마을에서 제본소를 운영하던 그는 책과 관련된 직업군을 한데 모아 책과 관련된 모든 것은 누구나 배워 쉽게 전파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책마을의 시작이 됐다.

미셸 브라방의 뜻에 마을 이장과 군수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지원한 결과 오늘날 이 마을에는 20여 곳의 책방과 인쇄출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 예술가와 작가의 공방들로 특성화를 이뤘다.

누구도 이 마을의 과거에 소규모 염색, 가죽옷공장들이 있었음을 눈치 채지 못한다. 한 때 마을을 이끌었던 ‘실세’였으나 하나 둘 문을 닫고 마을을 떠나가면서 정육점, 빵집 같은 ‘구멍가게’만 남게 되었다. 당연히 집세며 땅값이 떨어졌고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마을 전체가 가라앉게 됐다. 어떻게든 마을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마을이장(참고로 프랑스에서는 이장의 힘이 막강하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도에 눈을 돌렸다.

정책적으로 낡은 집이나 폐가를 매입, 책방으로 개조하여 돈 없이도 책방을 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이다. 처음 책방 3곳이



문을 연 후 당장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 지원으로 예술가들과 책을 사랑하는 외지인들을 마을로 끌어 들였다. 마을에 끌린 이들은 저절로 정착하게 된다. 이런 노력의 결과 유럽지역에서 성공적인 책마을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여든이 나이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청년같은 혈색을 자랑하는 책 마을 고문 아브리스 자크씨는 인터뷰 내내 마을 자랑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 그였지만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참 자랑을 하다 인터뷰가 끝날 때 즈음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바로 현지주민들과 정착해 사는 외지인들과의 소통문제이다. 책 마을이 형성된지 20년이 지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융화가 힘들다고 씩씩한 표정을 짓는다. 이 문제는 유럽의 한 시골 책 마을이 문제가 아닌 우리 제주지역 농촌마을에서 펼쳐지고 있는 관 주도 마을 살리기 운동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는 것 같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도서관지킴이 양성을 위한 도서관학교

“책, 사람, 도서관” -아름다운 사람들-

송순일 | 제주작은도서관협의회 사무국장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의회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찾았던 곳이 설문대 도서관이었다.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으로 작은도서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상의 업무 및 지역주민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측면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도서관의 내부시설, 양질의 도서와 문화프로그램 등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도서관을 지키고 있는 사서선생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기수관장님을 사서교육에 관한 부분을 먼저 문의했다. 1인 근무이며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갖기 힘들었던 도서관지킴이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싶었다.

관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책, 사람, 도서관>이라는 주제의 도서관 학교가 열리게 되었다. 10년 이상을 직접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해 오셨던 네 분(초롱이네도서관 오혜자관장,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공유선상임이사, 늘푸른어린이도서관 박소희관장, 책읽는엄마책읽는아이도서관 김소희관장)의 열강과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책먹는 여우>동아리의 책놀이 프



로그램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책을 매개로 도서관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느꼈다. 아니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작은도서관 추진배경, 왜 규모가 작다는 의미의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인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작은도서관의 중요성, 그리고 그 도서관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4일간, 16시간의 진행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모두들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그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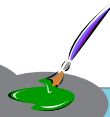
사람에게는 공감과 위로의 공간이 필요하고, 작은도서관에서 그런 이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웃이 또 다른 이웃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가 이루어지는 작은도서관!!

그 곳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은 분명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할 것이다.

도서관학교를 이끌어주신 임기수관장님을 비롯하여 멀리서 와 주신 네 분의 관장님, 책먹는 여우팀, 교육에 참가한 작은도서관사서 및 봉사자.

이 분들은 진정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설문대 "설아이" 프로그램



* 책과 노는 아이들 모임

- 두린아이 속닥속닥 책놀이 (10개월-35개월 아가 대상)
- 학교 밖 글쓰기 (1,2학년 주1회)
- 역사책 읽는 아이들 모임 (4학년 이상, 매주 목 저녁 7시부터)
- 논리적 글쓰기 (5학년 이상, 매주 금 저녁 7시부터)

* 주말 책 놀이터

- 펠링 도채비 프로젝트 (3,4,5학년, 주1회 수업, 넷째 토 야외체험)
- 악당개미 탐험대 (매달 둘째 토, 4학년 이상)

* 청소년 책 놀이터

- 책속에서 자기 찾기 (중학 1,2학년, 둘째, 넷째 토요일 저녁 8시부터)
- 책읽는 청소년 (고등 1,2학년, 첫째, 셋째 토요일 저녁 8시부터)

* 책읽는여우들

*행복한책나들이(농촌 병설유치원 책읽어주기 자원봉사)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책잔치 (11월)

*여름독서교실 '꽃들에게 희망을'

*겨울독서교실 '책 친구들과 몸놀이 해요'

- ❖ 프로그램은 사정상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md.or.kr)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 2012년 전반기 '설아이' 프로그램 신청은 2월 중순부터 접수 받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CMS 후원인 명단

강경남 강경림 강경희 강동근 강만숙 강문정 강병관 강병삼 강보승 강봉석 강수민 강수선 강순연 강순희 강승희 강영기 강영미 강윤수 강은아 강인숙 강지니 강찬구 강창화 강평구 강혜영 강희경 고경완 고만성 고명옥 고미경 고미수 고민자 고복희 고석용 고성용 고성범 고성호 고양열 고영미 고영순 고영경 고유숙 고윤석 고의숙 고정희 고현권 고희영 김경미 김경민 김경순 김경영 김경옥 김경옥 김영심 김기옥 김량희 김만생 김명선 김미조 김봉진 김상림 김성호 김성환 김인자 김세희 김소희 김수옥 김순덕 김승희 김 신 김양화 김연숙 김연지 김영미 김영민 김영완 김오순 김옥희 김용남 김용식 김용택 김유신 김유정 김윤자 김인영 김재윤 김재환 김정금 김정윤 김종현 김태완 김평숙 김현실 김현정 김효숙 김효정 김희정 문계양 문금선 문미혜 문유성 문인화 문재홍 문정희 문희현 박계임 박태진 백경환 백혜민 변춘순 부영숙 서은영 서종석 성영희 송미경 송명혜 송시우 송지영 송춘미 신우용 신호철 안연하 안은희 양가애 양석현 양연실 양용선 양인희 양재성 양정옥 양정원 양정은 양종수 양진건 양호선 양희연 양희선 양희정 양희연 오금숙 오신순 오승룡 오승훈 오영민 오정민 오정심 오정임 오종훈 오지은 오택진 오형범 이상임 이옥 이윤형 이은주 이임자 이주영 이지현 이진호 이창건 이창식 이현동 이현백 이혜연 이호석 이효열 이희숙 임경률 임권용 임미숙 임선향 임승희 임정일 임형주 임혜숙 장미애 장수영 장수명 장은정 장현선 정갑열 정동진 정명선 정미혜 정영수 정영우 정윤종 정윤탁 정윤택 조용숙 좌순영 좌순자 좌춘자 지희정 진민주 진성필 진은아 진정실 진창욱 차지연 채정심 채희영 최미자 최종진 최형규 한길숙 한상희 한예순 허순영 허 윤 현경미 현경철 현미경 현명옥 현오정 현은재 현을생 현정숙 현정희 홍경호 홍경희 홍덕봉 홍영희 홍효정 (주)제주관광가이드 (이상 243명)

* 새롭게 CMS로 후원해 주신 분들 : 신호철, 정미혜, 김경민, 임혜숙님 감사합니다. ^^

* 책 기증해 주신 분들 : 이반디작가, 이지원작가, 권윤택작가, 강석반, (주)스콜라스 뜯어만드는세상 기증 감사합니다.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1998년 10월에 문을 열어, 미래의 주인인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어린이 책과 문화 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이끌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독서 문화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 우리 도서관은 비영리 문화단체 사립공공도서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약 9,500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 운영은 후원자 분들(약 250여명)의 CMS 자동이체 후원금과 강좌 참가 수입으로 신간도서구입과 도서관 운영에 알차게 쓰이고 있습니다.

설문대를 이용하려면....

1. 이용시간 화~토. 오전10시~ 오후7시 (동절기는 6시까지).(월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관)
2. 회원이 되려면 회원가입은 부모님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지참). 회원으로 가입되면 책 대출은 무료이고 강좌는 무료와 유료가 있습니다.
3. 도서대출 안내 한 사람이 3권, 한 가족이 한번에 6권까지 빌릴 수 있으며 대출 기한은 1주일입니다.
* 대출 기한을 넘기면 그 날은 대출이 안 됩니다. 다음날 다시 오셔야 합니다.
4. 후원안내 * 우리 도서관은 무료로 이용되는 비영리 문화단체 사립공공도서관입니다. 꾸준히 좋은 책을 구입하고 활발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작은 손길이 필요 합니다.
* 책나무 키우기 CMS 자동이체 후원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5000원, 10000원) 후원해 주시는 성금은 도서관 운영과 신간도서구입에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